현대인 貪·瞋·癡, 몸짓으로 치유

파사무용단 2017 '버려야할 것들' 공연

현대사회의 '욕망'에 대한 성찰과 해법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불자 무용단의 무대가 막이 오른다.

파사무용단(단장 황미숙)은 11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제3회 '버려야 할 것들'을 공연한다. 2015년 초연한 '붓다 이야기 첫 번째: 버려야 할 것들…'에 이어 더욱 탄탄한 구성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이다.

'버려야 할 것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살인, 묻지마 폭행, 성폭행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건을 불교적으로 고찰한다. 그 원인을 탐욕(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 진에(노여움), 우치(어리석음)에서 찾고 이 탐진치 3독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지를 춤으로 표현한다.

이번 공연은 2015년 대한민국 무용대상에서는 단체부문 베스트 7로 선정됐으며 2016년 재창작되어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서울문화재단의 2016년과 2017년 예술창작지업사업으로 꼽히는 등 현대무용계의 대표작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난해하게 여겨지는 현대무용의 벽을 낮춰 미술과 음악, 문학의 폭넓은 장르로 소개하는 것이 파사무용단의 특징. 특히 이번 공연은 초연에 비해 옴니버스 형식과 전막 라이브 음악으로 진행돼 더욱 탄탄해진 구성을 자랑한다.

공연은 '나'라는 존재가 몸을 인식하며 분별을 시작하는 프롤로그 '존재'로 시작한다. 이어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씬1 '집착', 증

오는 11월 21~22일 강동아트센터
삼독심 끊어내는 수행 과정 표현
옴니버스 구성, 라이브음악 눈길

폭되는 나의 분노로 어리석음의 수렁에 빠지는 씬2 '고해', 삼독을 끊는 마음자리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씬3 '절연', 그리고 삼독을 끊고 자연의 순리에 합일, 지혜의 눈을 갖춘 에필로그 '극락'으로 구성돼 있다.

새로운 시각의 무대기법과 철학적 움직임의 해석을 관객들과 대화를 통해 나눌 예정이다.


파사무용단의 공연 모습. 파사무용단은 인간 내면의 고뇌를 불교적인 해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표현한 공연으로 문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황미숙 파사무용단장은 "3독을 버림으로써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닌 진짜 '나'의 내면세계를 바라봄으로써 '나'라는 존재의 자아를 찾길 소원하며 이번 작품 안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황 단장은 이어 "관객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보는 현대인이 꼭 봐야하는 필수 인문학적 작품"이라며 "무거운 주제를 순리와 인연이라는 고리로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소매를 나부끼며 춤추는 모양을 표현한 '파사'로 이름 붙여진 파사무용단은 불자 무용가 및 촬영팀으로 구성된 현대무용전문단체로 한국적인 현대무용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불교적 소재를 활용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매년 불교와 환경, 청소년을 주제로 한 공연을 무대로 올리고 있으며, 2014년 무용계 최초로 조계종이 인증하는 불교문화단체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유방암 의식 향상 재즈 콘서트 열린다

BTN 붓다회, 핑크리본 콘서트

유방암 의식 향상을 위한 콘서트가 불교계 최초로 열린다.

BTN붓다회는 11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 조계사 마당에서 시민 및 불자들의 유방암 의식향상을 위한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핑크리본 재즈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재즈가수 웅산과 국악인 전영랑, 재즈밴드 프렐류드가 함께하며 운성스님이 진행을 맡아 유방암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행동실천의 중요성을 나누는 의미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는 3시에 열리는 재즈콘서트 뿐만 아니라 콘서트 당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조계사 마당에서 BTN붓다회를 비롯한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하는 핑크아카데미와 핑크투어를 통해 유방암 예방 및 유방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가진단방법 알기 등 다양한 강좌를 즐겁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한다.

BTN 구본일 대표이사는 "1년 전 BTN붓다회가 출범한 이래로 그 동안 많은 분들이 방송포교의 큰 원력에 동참해주셨다"면서 "이번 행사는 BTN붓다회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캠페인으로 BTN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렌즈에 담은 사찰 문살의 아름다움

국제선센터 사진동우회 '인연'
2번째 사진전 개최

전국 사찰 꽃살문들 촬영
수익금 전액 장학금 기부


송미숙 국제선센터 사진동우회 인연 회원이 전시하는 강화 정수사 대웅보전 통판투조 꽃살문.

사찰은 문도 특별하다. 연꽃, 매화, 국화, 모란 등 꽃들로 장엄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찰의 문을 '꽃살문'이라고 한다. 카메라 렌즈에 아름답게 장엄된 꽃살문을 담아낸 전시회가 열린다.

조계종 국제선센터 사진동우회 인연(회장 도진)은 11월 11일부터 16일,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국제선센터와 양천문화회관에서 각각 진행되는 전시회의 주제는 '마음으로 보는 사찰의 문살'이다.

전시회는 20명의 회원들이 전국 사찰을 다니며 촬영한 문살의 사진 40여 점으로 채워진다. 부산 범어사부터 합천 해인사, 속초 신흥사, 양평 용화사 등 명찰 전각의 꽃살문들을 보고 있으면 화엄세계를 마주하는 것 같다.

동우회 회장 도진 스님은 "여러 사찰의 다양한 문살을 촬영하는데 공간·시간적 제약이 많았지만, 좋은 사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동우회는 새로운 주제를 준비해 더 좋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은 "법당의 문은 미혹한 중생 세계와 환희로 가득찬 부처님의 세계를 이어주는 경계"라면서 "전국 산사를 다니며 애쓴 마음이 고스란히 압축돼 사진에 담겼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여러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따스한 여유를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제선센터 사진동우회 인연의 사진전 수익금은 전액 국제선센터 장학회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통 목판화 작가를 찾습니다

원주 고판화博, 제5회 전통 판화 공모전

국내 유일 목판화 공모전
11월 28일~12월 3일 접수

전통 목판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선학)은 국내 유일의 전국 규모 목판화 공모전인 '제5회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2017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11월29일~12월3일 작품을 접수받는다.

전통판화·창작판화·생활판화 분야에 걸쳐 작품 공모를 진행하며 작가·비작가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생활판화 분야에서는 고판화박물관이 운영하는 생생문화재사업인 전통판화학교 수강생들과 문화부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자, 고인쇄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일반인들과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대상에 문화재청상과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에 강원도 도지사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에 원주시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특별상 5명에게는 고판화박물관장상과 상금 3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12월 11일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작품들은 박물관 내 특별 전시실에서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관장 선학 스님은 "팔만대장경 등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문화를 이룩했던 선조들의 기량을 이어받아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미래의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판화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판각술을 복원하고자 2013년부터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018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그 위상을 인정받았다. (033)761-7885

신성민 기자

불교 명사가 전하는 '아름다운 죽음과 생명'

장기기증원, 4주간 시민강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사장 조원현)은 11월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층 회의장서 '2017 생생문화포럼 시민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아름다운 죽음, 그리고 생명'이라는 주제로 총 4회 강연이 무료로 진행된다.

17일 첫 강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즐기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호스피스병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목숨'의 이창재 감독이 나선다.

24일에는 수의학자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생태적 사유와 생명의 의미'를 주제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삶의 주인으로서 생명의식을 갖도록 조언한다. (02) 542-5635

윤호섭 기자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 원 불 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치매
죽을 때까지 걸리지 않는 방법

• 불면증에서 벗어나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